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실시

스타벅스가 10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개인컵을 사용해 할인 혹은 예코별 적립 혜택을 받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해 톨 사이즈 무료음료 쿠폰 2매를 증정한다. 스타벅스 개점 23주년의 의미인 23에 일(1)회용컵 없는(0)날을 상징하는 숫자 10을 골라 총 230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경제 비상등

고유가·고환율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유가와 원달러환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국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대로라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기조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원자재 가격·원달러 환율 상승세 국내 물가, 4%대로 오를 가능성 높아 적자 벗어난 무역수지도 하락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유가와 원달러환율이 고공 행진하며 국내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및 슬로플레이션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진은 원달러환율 1237.0원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왼쪽)과 9일 서울 소재 한 주식소의 유가정보판. 뉴스

휘발유	2277
경유	2117
등유	1360
고급휘발유	2578

한국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이후, 2월 8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원달러환율 고공 행진

먼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배럴당 9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7일 기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9일(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공식 발표한 만큼, 가격이 배럴당 최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가 외 타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유류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03.92% 폭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콤파운드스 원자재지수도 같은 기간 20.03% 치솟으면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원달러환율이 뛰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8일 원달러환율은 전일 대

비 9.9원 오른 12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증가 기준 123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20년 5월 29일(1238.5원)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즉 대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달러 가치의 가파른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의 원유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유가 상승이 물가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 국가보다 크다. 국제유가가 이미 전장을 뚫은 가운데,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져 국내 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는 곧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2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는 등 국내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2월 말부터 상승한 국제유가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부진으로 경제지표 하강 우려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경제지표는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기에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요인 확산 정도에 따라 세계 교역 규모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신히 적자에서 벗어난 무역수지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이후, 2월 8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결국 수출이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기조 속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7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KDI는 "최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인해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현대차 아이오닉 5가 '2022 영국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 편집장 존 웰린(왼쪽)과 현대차 영국법인 대표 애슐리 앤드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디자인·성능·실용성, 모든 면에서 우수" 현대차 아이오닉 5, '영 올해의 차' 수상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영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8일(현지시간)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탑재한 첫 번째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세계 유수의 자동차를 제치고 '2022 영국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국 올해의 차'는 탑이어(TopGear)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 2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에 뽑힌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이 가운데 아이오닉 5가 최종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 편집장 존 웰린은 "아이오닉 5가 자동차의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특히 디자인, 성능,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영국 올해의 차로써도 손색없다"고 극찬했다.

원성열 기자

벤츠,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10억 기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장 토마스 클라인)는 경북 및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를 위해 10억 원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수 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로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긴급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지역 공식 딜러사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토마스 클라인 의장은 "최근 발생한 재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고 피해 현장을 복원하며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긴급한 지원을 결정했다"며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LGU+, 'NH로뱅크' 통해 알뜰폰 판매 강화

LG유플러스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 'NH로뱅크'를 통한 알뜰폰 판매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뱅크 앱 NH로뱅크를 통해 알뜰폰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사진)를 연다. 3월 한 달간 NH로 100번 15GB+, NH로 무한 11GB+, NH로 매일 5GB+ 요금제 중 한 가지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스타일러, LG스탠바이미, LG코드제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등 총 160명에게 준다.

요즘같은 프로모션도 연장한다. NH로뱅크 알뜰폰 가입 고객은 NH로 100번 500MB(차단형)는 3630원, NH로 200번 5GB+는 1만6100원으로 가입 해지 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편, LG유플러스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NH로뱅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9월 NH로뱅크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김병근 기자

미래에셋증권, 2021년 코스피 우수 투자은행 선정

IPO 흥행·중소기업 상장 추진 이끌어

미래에셋증권이 2021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우수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해 코스피

상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실적 등 시장기여도와 IPO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크래프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현대중공업 등의 IPO 대표 주관을 맡아 흥행을 이끌었다. 대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왼쪽부터)이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거래소

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적극 추진한 것도 주요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코스피 IPO 시장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우량기업 발굴부터 상장까지 모든 과정을 충실히 주관해 온 IB들의 역할이 컸다"며 "올해도 상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장관리에 힘써 한국 증시의 레벨업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두산, 반도체 사업 진출...4600억에 '테스나' 인수

국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 시장 잠재력 높아...적극적 투자 확대 반도체 후공정 대표기업 성장 목표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이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벗어난 뒤 첫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반도체 사업을 선택했다.

두산은 8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 기업인 테스나(TE SNA) 인수를 결정하고, 테스나 최대주주인 에이아이트리 유탄회사가 보유 중인 테스나의 보통주, 우선주, BW를 포함한 지분 전량(38.7%)을 4600억 원에 인

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테스나는 '모바일폰의 두뇌'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카메라 이미지센서(CIS), 무선 통신칩(RF) 등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국내 동종 기업 중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이다. 웨이퍼(wafer)는 반도체 집적 회로(칩)의 토대가 되는 얇은 원형 판으로 웨이퍼 당 1000~1만 개의 칩이 새겨진다. 반도체 정밀도에 영향을 미쳐 양품과 불량품 선별과정이 중요하다.

두산그룹은 최근 파운드리 시장 확대와 함께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부문 투자

확대 및 후공정 외주 증가 추세로 시장 잠재력과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테스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실적 성장세도 뚜렷해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2075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매출은 56.6%, 영업이익은 76.8% 증가했다.

두산은 이번 인수를 기점으로 반도체 사업을 기존의 에너지(발전) 부문, 산업 기계 부문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 투자를 통해 테스나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후공정 전문회사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은 인공지능, AR/VR, 빅 데이터, 5G, 전기차/자율주행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메가트렌드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반도체 분야 진입 기회를 꾸준히 모색해왔다.

두산 관계자는 "미래 산업 전방위에 걸쳐 반도체 분야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라며 "두산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테스나를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